

정청래, 대주주 기준 이견에 ‘공개발언 자제령’...與 대책 부심

“이렇다 저렇다 당내 논란 부적절
비공개 토론 후 빠르게 정리 발표”
추가 하락·투자자 반발 등 잡음에
“시장 반영” 재검토 목소리 잇따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범위를 확대(50억→100억)하는 방안을 두고 투자자 반발과 당내 공방이 이어지자 대책을 서둘러 내놓기로 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대주주 범위를 정하는 기준에 관한 공개 발언 금지령을 당내 의원들에게 내리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신임 한정에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이 담긴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난 1일 국내 증시는 폭락했다.

투자자들이 반발하자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서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에 직전 정책위의장인 진성준 의원은 재검토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고, 이소영 의원을 필두로 의원 10여명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으로 맞섰다.

이 의원은 이날도 정 대표가 공개 발언 자제령을 내리기 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용기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여당 의원 13명이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 우려 의견을 표명했고, 국민청원도 11만명 동의를 넘겼다”며 “당정이 겸허히 재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히 철



본회의 참석한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4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대주주 기준 재검토에 힘을 싣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정 부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치나 행정은

없다. 시장과 개미 투자자의 염려 여론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장 적절한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힘을 보탤었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 때 심해진 재정 적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 방향과 상충한다는 개미투자자들의 비판을 샀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일단 대주주 기준과 관련한 입장이 정리되면 당정이 함께 재검토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이 30억원 안팎으로 절충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원내소통수석은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시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며 “당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계속 부정적이라 최대한 조속히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양곡관리·농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민중,尹정부 거부권 법안 재추진

양곡법 등 일부는 여야 합의처리

초중등 AI교과서 변경법도 통과

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부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방송 3법 등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법안을 상정하기 앞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1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처음 행사했던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이들 법안을 재추진했으며,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올라왔다.

다만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 토론을 통해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으로 좌절됐던 법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주장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야합의로 통과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이견 끝에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이날 국민의힘 서지영·정성국 의원은 초중등 교육법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 격하는 사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 등 아이들의 새로운 경험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AI 교과서 정책은 AI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키는 무모한 정책으로 이제 멈춰야 한다”고 반박했다.

본회의 표결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259인 중 찬성 218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250인 중 찬성 182인, 반대 87인, 기권 1인으로 통과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 찬성·반대 토론이 있었다. /연합뉴스

한미 관세 협상 국민 10명 중 6명 ‘긍정적’
40·50대 긍정 높고 18·29세는 부정 과반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풀로 지난달 31일 전격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미 관세 협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전체의 63.9%였다.

‘잘못했다’고 평가한 비율은 3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지역별 긍정 평가율은 광주·전라(81.5%), 경기·인천(70%), 대전·세종·충청(60.8%), 부산·울산·경남(60.7%), 서울(56%), 대구·경북(53.8%) 등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77.7%)와 50대(70.6%)에서 70% 이상의 긍정 답변율을 기록했다. 60대(67.4%), 70세 이상(62.9%), 30대(59.1%)에서도 긍정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18·29세에서는 긍정(41.2%)보다 부정(53.8%)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념 성향에 따라 협상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진보층의 경우 84.1%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보수층에서는 긍정(47.8%)과 부정(48%)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 중도층에서는 61.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與 검찰·언론·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최민희·백혜련

정청래 “3대 개혁, 폭풍처럼 끝낼 것”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당내 검찰·언론·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민형배, 최민희, 백혜련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언론·사법개혁을 폭풍처럼 몰아쳐서 끝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검찰·언론·사법 등 3대 개혁을 포함한 ‘강력한 개혁 당대표’를 구호로 내걸고 당선됐다.

당선 후 첫 공개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3대 개혁 특위를 이끌 단장 인선을 발표하는 등 ‘개혁 속도전’에 나선 모습이다.

정청래 대표는 “3대 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이미 구성돼 있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 방향을 찾아 진행한다”며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추석 전 완수’라는 시간 안

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 특위 위원장으로 장경태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당원주권정당의 완성, 모든 당원의 1인 1표제, 전당원 투표 상설화 등 약속드린 것들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는 당헌·당규 개정으로 당원이 주인인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남도 밥상

을 지키는 사람들

최지영 남정자 박기순 조장희

◀ 광주매일신문

남도밥상을 지키는 사람들

| 잊혀져 가는 남도음식의 맛과 멋을 총망라!
남도음식의 산업화·세계화를 위한 기폭제 마련!

남도는 맛의 고장이다. 기름진 땅과 맑은 물에서 고운 햇살을 받으며 자란 청정 농수산물과 넉넉한 인심으로 맛갈스런 맛을 낸다. 이런 남도 음식중에서도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향토음식을 엄선해 그 가치와 비법 등을 소개했다. 남도 음식의 새로운 진면목은 물론 산업화·세계화를 기대하면서~

구입문의 광주매일신문 사업본부(062-650-2078)
입금계좌 광주은행(016-107-323257:예금주-(주)광주메스컴)
정 가 20,000원